

## 우리나라 果實類의 歷史的 考察

姜 椿 基

서강실업전문대학 식품영양학과

### A Historical Study on Fruits in Korea

Choon Ki Kang

Dept. of Food and Nutrition, Seogang Junior College

#### Abstract

The agriculture of Korea was begun in the neolithic era partly and generalized around 4,000 B.C. Discovery of acorn and stoneworks used in agriculture in neolithic era in 8,000 B.C to 6,000 B.C suggests that prehistoric ancestors of Korean might use acorn, hazel-nuts, and haws, etc. as foods. Cultivation of chestnuts, peaches, plums, pears, and japanese apricots was found in Mahan, the tribal states, and in the period of three kingdoms and Balhae dynasty too. In the period of Koryo, pears, plums, japanese apricots, pine nuts, apricots, grapes, jujubes, ginkgo nuts, oranges, and citrons were cultivated and used in diet. Sejongsilrokjiriji(1454), a geography of the early chosun, and Sinjungtonggukyojisungnam(1492) show that they cultivated almost all fruits we are now cultivating such as hazel-nuts, haws, nutmeg nut, and so on. Loquats seem to be brought in the early chosun era and figs around 16th century. Pecans, sweet cherries were brought around 1,900 and recently tropical fruits like kiwis were brought in and used in a large scale. In addition, Some fruits were used in medical treatments. Fruits increase the pleasure of the diet and sometimes they are used as a measure of a standard of living. Fruits have been improved and used for a long time, their status in our diet will be maintained resolutely.

#### I. 序 言

人間生活 중 가장 基本이 되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食生活이다. 食生活의 基本이 되는 먹는 것은 人類의 文化發達過程을 살펴보면 漸進的으로 변화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시대적 變遷에 따라 살펴보면 식품은 수렵, 어로, 채취, 耕作이라는 과정을 통해 얻어졌다. 먹는 것 중 木本性植物의 果實은 農耕文化가 始作하기 수만년 전부터 인류에게 소중한 食糧資源의 하나였다.

그것들은 山野에 自生하고 있는 食品이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걸쳐 改良하면서 利用하여 왔다.

오늘날 果實의 種類는 食用作物의 半數以上을 占하여 世界에는 약 3000種이 있다.<sup>1)</sup> 우리나라에서 栽培하고 있는 果實類는 18種<sup>2)</sup>이라고 하지만, 실제 재배되고 있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氣候가 온대 몬순 夏季高溫多雨氣候여서 植物의 生育期이 긴편이기 때문에 多樣的 植物들의 生育이 可能하다.

이런 天惠의 利로움 때문에 옛부터 여러 가지 果樹類를 栽培生産利用하여 왔다. 果實은 食生活를 豐盛하게 하기 때문에 果實의 消費量은 生活水準의 指標이기도 하다. 人間의 生活과 이렇게 깊은 관계있는 果樹類의 栽培와 果實利用이 어떻게 發展하여 왔는가를 더듬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本論文은 古農書, 史料, 論著들을 통하여 果實類 食品에 대한 史的考察을 하는데 있다. 이 分野를 밝힌 이미순, 이성우의 論文<sup>3)</sup>에 힘입은 바 컸음을 밝혀 둔다.

#### II. 極東地域 中國大陸 시베리아의 野生果實類

우리가 살고 있는 地球의 氣候는 地史學的으로는 新生代 第 4기인 洪積世(Pleistocene) 그 후의 沖積世(Alluvial Epoch)의 것이다. 이렇게 地質이 변하는 동안 氷河의 발달이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氷河의 발달이 별로 크지 않았던 것

같다. 빙하의 영향이 가장 컸던 18,000년전경을 볼 때 아시아 지역은 히말라야山系가 있는 중국 서북지역과 일부 高山地域을 제외하고는 水河의 영향밖에 있었다. 韓半島에 있어서 洪積世 水河期와 間水河期를 통한 氣候環境은 人類의 棲息을 방해하는 寒冷한 氣候는 아니었으나 生物의 分布는 현저한 差異가 있었다.<sup>6)</sup> 그 時代의 人間의 居住地 또는 遺蹟地에서 그들이 쓰던 日常의 石器 등의 道具와 함께 메머드, 물소, 코뿔소 등의 動物의 骨格도 발견되고, 또 그보다 앞선 地層에서 발견되는 化石을 보더라도 어느 때는 현재의 平均溫度보다 약간 높았던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약간 낮은 때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그 地層에서 種子를 맺는 고사리化石, 소철化石 등이<sup>5)</sup> 발견되었는데 그러한 植物相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현재의 氣候의 溫度보다 더 높았을 것이다. 水河期에는 바다물이 대단히 낮아진 채 오랜 동안 지속되어 黃海와 東海의 대부분이 陸地로 되었던 때도 있었다. 이러한 氣候變遷에 따라 우리나라의 植物相도 변화가 있었다.

오늘의 果樹類들은 固有한 自生種들을 改良한 것만이 아니고 먼 西域에서 들어 온 것도 적지않다. 먼저 우리나라 및 우리나라와 인접한 지역에서 自生하는 野生果樹類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果樹라는 것은 원래 野生植物이었던 것을 오랜 기간을 통해 개량하였기 때문이다.

極東地方에는 野生배나무인 산돌배(*Pyrus ussuriensis*)를 비롯하여 많은 種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돌배나무(*P. calleryana*) 등 22種이 있고<sup>6,7)</sup> 만주지역에도 10여종이 분포되어 있다.

살구(*Prunus armeniaca*)의 野生形態의 原產地는 동아시아의 溫暖地域으로 中國의 華北 및 滿蒙地方이다. 野生살구를 베이징 近郊의 山地에서 발견한 예도 있고 Ala-Taou에도 自生하고 있다고 한다. 天山山脈 西部支脈의 해발 2190 m에 있는 이스칸테르굴의 아름다운 山岳湖 인근에 널리 分布되어 있다.<sup>8)</sup> Vavilov는 살구 재배의 中心地를 中國으로 보고 있다.

복숭아(*Prunus persica* Sieb. et Zucc. var. *Vulgaris Maxim*)의 自生種은 중국 중부로부터 북부지방에 걸쳐 산악지에 널리 分布한다. 몇몇의 형태는 티베트, 버마 및 인도차이나(통킹북부의 산립)의 경계지역까지 生育하고 있다. 복숭아의 野生型은 극동지방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다.

모과나무(*Chaenomeles sinensis*)는 명자나무속(*Chaenomeles*)에 속하는 식물이다. 명자나무는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열매는 모과보다는 훨씬 작지만 모과 비슷한 열매를 맺는다. 모과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수직적으로는 표고 100~170 m, 수평적

으로는 全南北, 慶南北, 忠北, 京畿道에 野生한다.<sup>9)</sup>

대추(*Zizyphus sativa*)는 유럽 동남부, 아시아 남부, 아시아 동부가 原產地인데 중앙아시아의 山岳地帶에 自生하는데 원산지에서는 해발 1000 m의 곳까지 自生하고 있다. 멧대추(*Z. jujuba*)는 중국북부, 한국에 널리 分布한다.

감귤류(*Citrus*)는 말레이반도, 인도차이나반도, 중국 남부, 필리핀에 걸친 지역을 起源으로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 이 나무의 어떠한 自然形態도 森林에서 발견되어 있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감귤류는 인간이 개량한 어떤 野生植物 혹은 이 지역 고유의 몇 개의 *Citrus*類 사이의 自然交雜 또는 人爲交雜에서 派生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밀감류라고 할 때에는 탕자속(*Poncirus*), 감귤속(*Citrus*), 금柑속(*Fortunella*)의 3속에 속하는 식물 전부를 말한다.

시베리아의 森林地帶에는 野生사과인 야광나무(*Malus baccata*)가 群落을 이루고 있다.<sup>10)</sup> 이 나무는 滿洲와 韓半島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나무의 열매는 대단히 작지만 그 곳 住民들이 利用하고 있는데 耐寒性이 놀라울만큼 강하다. 이 種에는 3개의 變種이 있는데 털야광나무, 민야광나무, 개야광나무 등 이다.<sup>11)</sup> 또 이들 야광나무와 재배품종과의 교잡에 의해서 사과를 재배할 수 없는 北方地域에서도 열매는 작지만 그래도 사과의 風味를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도 育成하여 현재 시베리아의 서부와 동부에서 재배하고 있다.<sup>12)</sup>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나무속(*Malus*) 식물이 6種 自生한다.

가래나무(*Juglans mandshurica*)는 야생호도나무인데 해발 700 m 지대가 자라는 중심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慶北으로부터 咸北에 이르는 各地와 특히 鴨綠江沿岸에 群落을 이루고 있고<sup>13,14)</sup> 만주·우수리·아무우르·시베리아 등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호도나무류는 化石으로도 5種이나 발견되었다.<sup>15)</sup> 대단히 흥미있는 것으로는 野生포도인 왕머루(*Vitis amurensis*)가 있는데 栽培種포도는 우리나라 中部地方에서만 하더라도 겨울철에 줄기를 땅에 파묻거나 짚 등으로 싸서 특별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凍害를 입는데 왕머루는 내한성이 강하여 시베리아에서 住民들에게 널리 利用된다고 한다.

이렇게 오늘날 栽培하고 있는 菜蔬, 果樹를 포함한 園藝作物들은 오랜 기간을 통하여 선발 자연교잡, 인위교잡을 통해 種을 改良하거나 도태시키면서 種을 증가시키며 利用하고 있다.

Luybin(1936, 1951)은 살구의 1종(*Prunus divaricata*)과 서양오얏(*P. spinosa*)을 교잡해서 오얏을 1종(*P. domestica*)에 가까운 雜種을 만들었다고 Zawasky는

표 1. 주요 과실의 원산지

동 부		서 부	
종 류	원산지	종 류	원산지
일본배	일본	사과	유럽, 아시아 서부
중국배	중국 북부	서양배	유럽 중부, 동남부, 아시아 서부
모과	중국	앵두	아시아 서부
복숭아	중국	오얏	아시아 서부
살구	아시아 동부	포도	유럽중: 아시아 서부
매실	아시아 동부		미국중: 북아메리카
밤	일본, 대만, 중국	무화과	아시아 서부
감	중국, 일본		
대추	중국	호도	유럽 동남부, 아시아 서부
감귤	인도 동부, 남태평양 일대	Pineapple	열대 아메리카
	중국 남부		
비과	중국		
바나나	열대아시아		
Kiwi	중국 양쯔강 연안		

그의 著書에 引用하고 있다.<sup>16)</sup>

표 1은 주요 과실의 원산지를 동부와 서부로 大別하여 나타낸 것이다.

### III. 古考學的 遺物과 古文獻에서의 果實類 食品

우리나라는 歷史가 오랜된 것에 비하여 古代史料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最近에 古考學界의 括目할만한 發掘로 舊石器時代, 新石器時代, 青銅器時代의 文化와 그 당시 部族들의 生活相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舊石器時代는 論外로 하고 韓半島에서 新石器遺蹟 가운데 가장 年代가 올라가는 것은 강원도 오산리 유적으로 서기전 8000년경(지금부터 1만년 전)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다음은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 서포항유적과 南海岸 조도유적 등인데 이 유적들의 年代는 서기 전 6000년(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경이나 된다.<sup>17,18)</sup> 한반도와 만주지역의 新石器遺蹟 가운데서 가장 빠른 것이 서기전 8000년 경이었으니 이는 中國의 후양허(黃河) 유역의 가장 빠른 신석기유적인 페이리강문화(裴李崗文化)나 츠산문화(磁山文化) 등의 유적보다 더 빠른 것이다. 서포항 등의 유적에서는 穀物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던 加工器具인 갈돌판과 갈돌대가 出土되었다. 그 때까지의 社會構造는 部族(tribes, 부족 사회라고도 한다) 社會였는데 이런 遺物들은 이미 農耕社會였음을 알게 해준다. 이들 유적에서 다른 遺物

들과 함께 도토리가 出土되었다. 이는 그 당시 自生하는 天然의 열매를 利用했음을 立證해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토리외에 다른 果實의 殘骸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果實을 利用되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설령 그 당시 居住人들이 果實을 埋藏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땅 속에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변화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社會水準 및 經濟生活이나 出土된 遺物, 隣接地域과 相互比較함으로써 우리의 狀況을 類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장광직(張光直)의 저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商文明』이란 저서에서 리샤오명(李孝定)의 商나라 時代의 甲骨文字의 研究結果인 『甲骨文字集釋』을 所取하고 있다. 그 甲骨文字에서 나무(木)의 요소가 있는 48개의 文字를 蒐集하였는데 그것들 중에 살구나무, 모과나무, 버드나무 등과 같이 그 이름이 확인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sup>19)</sup> 살구나무, 모과나무라는 甲骨文字가 있다는 것은 이미 그러한 果實을 利用하였음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열매들이 自生하는 地域에 살던 東아시아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것들을 손쉽게 利用했을 것이다. 그리고 대략 서기전 1700~1100년까지의 약 600년 사이로 추정되는 안양(安陽)과 정저우(鄭州) 문화와 같은 시대의 것으로 열리강(二理岡) 단계의 유적으로서 타이시촌(臺西村) 유적에서도 3종류의 복숭아와 오얏(자두)이 出土되었다.<sup>20)</sup> 기원전 2200년의 파이미링(포

표 2. 中國의 古書에 收錄된 果樹類

出典	果樹類
尚書(書經)	매화, 유자, 굴
禮記	개암, 아가위(산사나무), 대추, 복숭아, 오얏, 살구, 매화, 배, 감, 모과, 유자, 굴, 밤
詩經	아가위, 대추, 복숭아, 오얏, 매화, 모과, 밤
山海經	아가위, 복숭아, 오얏, 살구, 매화, 유자, 굴, 밤, 배
名醫別	복분자(나무딸기), 멧대추, 대추, 복숭아, 오얏, 살구, 감, 사과, 능금, 석류, 앵두, 모과, 유자, 굴, 밤, 비파
漢書	포도
神農本草經	멧대추, 복숭아, 배, 밤
本草經	대추, 복숭아, 매화, 배
抱朴子	대추, 석류
博物志	복숭아, 오얏, 매화, 배, 석류, 앵두, 밤
廣志	복숭아, 오얏, 살구, 매화, 배, 사과, 능금, 석류, 모과, 밤
齊民要術	대추, 복숭아, 오얏, 살구, 매화, 배, 감, 사과, 능금, 석류, 밤, 비파
爾雅	멧대추, 대추, 복숭아, 오얏, 앵두, 모과, 유자, 굴, 포도

馬嶺) 유적에서는 복숭아씨가, 기원전 2620~3370년 사이의 치언산양(錢山漾) 유적에서는 땅콩, 참깨, 잡두, 마름, 참외씨들과 범씨 그리고 복숭아, 멧대추씨가出土되었다.<sup>21)</sup> 그런데 여기서 참깨가出土된 것이 흥미롭다. 왜냐하면 포도나무(*Vitis vinifera*)와 자주개자리(苜蓿 *Medicago sativa*)를 中國으로 가져온 것은 後漢의 張騫이라 한다. 그리고 골파(胡葱, *Allium scorodoprasum*), 고수풀(胡荽, *Coriandrum sativum*), 오이(胡瓜, *Cucumis sativus*), 無花果(*Ficus carica*), 잇꽃(紅花, *Carthamus tinctorius*), 참깨(胡麻, *Sesamum orientale*), 石榴(*Punica granatum*), 胡桃(*Juglans regia*) 등은 먼 後世에 +3세기부터 +7세기에 걸쳐서 옮겨 심은 것으로 보고 있다.<sup>22)</sup>

이렇게 볼 때 동아시아에서 사람들에게 의해 과실의 이용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後魏 賈思勰의 『齊民要術』에

東夷韓國山大栗狀如梨<sup>23)</sup>

라 하여 '馬韓에서는 큰 밤이 많이 있는데 크기가 배만 하다'고 하였고 『魏志』 『馬韓傳』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다. 물론 이 무렵에 이용했던 과실들은 밤을 비롯해서 개암, 아가위, 멧대추, 모과, 살구, 복숭아 등이었으리라 생각된다.

淮南王 劉安(B.C 179~123)의 著書라고 하는 『淮南子』에

古者民茹草飲水 采樹木之實 食蠃蚌之肉 時多疾病 毒傷之害 於是神農乃始教民 播種五穀 相土地

宜燥濕 肥境高下 嘗百草之慈味 水泉之甘苦 令民知所辟就 當此之時 一日而遇七十毒<sup>24)</sup>

神農氏가 農事짓는 법도 가르쳤고 몸소 음식물의 유독 여부를 시험해 보고자 하루에도 70번이나 毒있는 음식물을 접했다는 記錄은 中國人들만이 그렇게 하고 韓國人의 祖先들은 그와 類似한 行爲를 못했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祖先들 중 누군가는 그러한 鑑別을 共同體의 安寧을 위해 했으리라고 생각된다.

中國의 古典籍에 果樹類가 많이 記載되어 있는 것으로는 『山海經』, 『詩經』, 『爾雅』, 『廣志』, 『齊民要術』, 『神農本草經』, 『名醫別錄』 등을 들 수 있는데 거기에 수록된 과수류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中國에서는 일찍부터 여러 종류의 果樹를 栽培利用하였는데 그들과 隣接하고 있는 우리 祖先들도 中國에서 栽培되고 利用하던 果樹를 전 종류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種을 栽培利用 했으리라고 생각된다.

#### IV. 三國時代와 渤海의 果實類 食品

『三國史記』에는 4種의 果樹類가 記載되어 있다. 三國時代의 產業은 農業이 主宗이었기 때문에 그 史書에는 氣象에 대한 記錄이 대단히 많다. 여러 氣象變化를 상세히 적고 있다. 氣象의 變化를 한 現象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떤 徵兆로 본듯하다. 果樹에 관한 것도 正常狀態의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變化가 있을 때에만 기록하고 있다. 복숭아와 오얏이 꽃피었다는

똑같은 표현이 『三國史記』新羅本紀에 6번, 高句麗本紀에 2번, 百濟本紀에 1번 모두 9번 記錄되어 있다. 그 맨 첫기록은 서기전 13년 百濟 湏祚王 3년 10月條에 <冬十月 桃李花><sup>25)</sup>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복숭아와 오얏을 재배하고 있었고 梅花도 栽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高句麗本紀 大武神王 24년(서기 41년) 8月條에

秋七月 隕霜殺穀 八月 梅花發<sup>26)</sup>

라는 句節을 본다. <가을 7월(음력)에 서리가 일찍 내려서 곡식들이 죽어 버렸고, 8월에는 梅花꽃이 피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高句麗 陽原王 2년(546) 2月條에 배나무에 대한 기록이 있다.

王都梨樹連理<sup>27)</sup>

‘國都의 배나무가지가 둘이 하나로 어울려졌다’. 즉, 接하여 졌다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접붙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배나무에 대한 기록이다. 『三國史記』에는 이렇게 4종류의 果樹類에 대한 단편적인 것 밖에 없다. 그러나 이웃나라 記錄들에서 우리나라의 果樹類 栽培에 대한 기록들을 볼 수 있다. 『隋書』에

百濟土田下濕有巨栗<sup>28)</sup>

라는 것은 百濟에서 큰 밤이 産出된다는 것으로 보아 百濟에서는 좋은 밤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時代 韓致元이 엮은 『海東譯史』에 「日用草本」에 있는 것을 所取하고 있는 것을 보면

海松子生新羅者肉甚香美<sup>29)</sup>

‘신라에서 잣이 나는데 그 맛이 좋다’는 것으로 보아 신라의 잣은 中國에까지 알려진 名品이었던 것 같다. 『芝峯類說』에

新羅使者每來 多齎松子有教 等玉角香 重堂裴御家長 龍牙子唯玉角香 最奇使者 亦自珍之<sup>30)</sup>

라는 「清異錄」에서 所取하고 있다. ‘신라의 使臣들이 올 때마다 잣을 많이 팔았다. 이것을 玉角香이라고도 하고 또 龍牙子라고도 하는데 公卿들의 집에 선사도 한다. 사신들도 그것들을 대단히 귀히 여긴다’는 것으로 보아 新羅의 잣이 名譽를 짐작할 수 있다.

石榴도 三國時代에 栽培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唐나라 杜甫의 詩에

新羅多海紅并海石榴<sup>31)</sup>

라는 부분을 『芝峯類說』에서 所取하고 있다. ‘신라에는

海紅과 海石榴가 많다’는 뜻이다. 석류는 安石榴라고도 한다. 海紅은 해당화를 말하며 海石榴는 石榴라고 한다. 石榴의 原產地는 이란地方을 중심으로 해서 印度西北部까지 分布되어 있다. 中國에서는 前漢時代에 張騫에 의해 西域으로부터 種子를 가지고 와서 심은 것이 東漸의 시초라고 한다.<sup>32)</sup> 그러나 3세기말경에 페르시아로부터 印度·티베트를 거쳐 수입되었다는 說이 說得力을 갖고 있다.<sup>33)</sup> 그리고 高麗末 李崇仁(1349~1392)의 詩에

玉露添顏色 瓊漿澱齒牙  
感君遙惠重 驅我睡魔除<sup>34)</sup>

‘옥 같은 이슬이 안색에 더 했고/구슬장이 이빨을 적 시네/감사하다. 그대의 선물이 중하여/나의 睡魔를 멀리 쫓는다’라고 그가 石榴를 받고 謝禮하는 詩로 미루어 볼 때 石榴가 널리 아날지라도 조금씩은 재배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 석류를 먹고 잠을 쫓는다는 表現은 우리가 석류를 먹고 늘 체험하는 것이다. 石榴도 耐寒性이 좀 약한 편이어서 널리 栽培 못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日本의 正倉院(奈良의 東大寺院屬)에 新羅 景德王 14년(755년)에 작성되었으리라고 믿어지는 『新羅民政文書』가 있다. 이것은 新羅의 한창시절에 西原京(淸州)地方 四簡村에 대한 오늘날 農家實態調査와 같은 類로 아주 細分化되어 調査記錄된 당시 실정을 알아 볼 수 있는 貴重한 文書이다. 거기에서 果樹分野만 보면 柏子木(잣나무), 秋子木(胡桃)의 수효도 기록된 것<sup>35)</sup>으로 보아 호도나무도 재배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호도나무는 中國에는 3세기경에 중앙아시아로부터 들어왔고 이것이 다시 4세기말경에 우리나라에 온 것으로 보고 있다.

『新唐書』의 (渤海傳)에

九都之李 樂遊之梨<sup>36)</sup>

라고 되어 있다. 九都는 옛 高구려의 首都였던 오늘의 吉林省 輯安이고, 樂遊는 오늘의 어느 곳인지 알 길이 없다. 輯安一帶은 오늘도 오얏을 비롯한 여러 가지 果實이 상당량 생산된다. 渤海의 産物로써 渤海人들이 귀히 여기고 外國에까지 알려진 것들이 적지 않는데 오얏, 배 이외도 園藝作物으로써 몇몇 채소류도 名譽이 있었다.<sup>37)</sup> 이외에도 밭배의 잣이 유명하였다.<sup>38)</sup>

三國時代나 統一 新羅時代와 渤海王朝時代에 栽培利用되었다는 果實들은 몇몇 種類밖에 記錄되어 있지 않다. 後魏의 賈思勰의 『齊民要術』이나 南北朝時代의 梁의 陶宏景의 『名醫別錄』 등에 記載된만큼이 果實種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V. 高麗時代의 果實類 食品

農業의 主産業이었던 歷代王朝에서 그랬던것 같이 高麗王朝도 建國하면서부터 歷代王들이 治山治水 등 重農政策에 힘쓴 것을 볼 수 있다. 仁宗 23年(1145) 5월에

輸養都監奏令 諸道州縣地品不成田畝  
桑栗漆楮隨地之性 勸課栽植從之<sup>39)</sup>

라 하였으니 숲을 내려 地品이 이룩되어 있지 않은 土地에 뽕나무, 밤나무, 옷(칠)나무, 딱나무를 심게 한 것이라든지 또 明宗 18年(1188년) 3월에

勸農務修堤堰 貯水流潤 無令荒耗 以給民食亦  
以桑苗隨節栽植 至於漆楮栗栲梨棗果木  
當其時栽以興利<sup>40)</sup>

‘農事에 힘쓰고 堤防을 보수하여 貯水되고 물이 막힘 없이 잘 흐르게 하라. 땅이 황폐됨 없이 잘 일구도록 하고 民에게 뽕나무 묘목을 적절히 나누어 주어 심도록 하고 옷나무, 딱나무, 밤나무, 잣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등 果木을 제때에 심어 이롭게 하라’는 숲이 내려진 것으로도 王들이 農政에 힘쓰면서 果樹의 栽培도 勸獎하고 있다.

또 太廟(宗廟)에 祭禮할 때 進饌者가 곱높은 보시기(변), 곱보시기(豆), 곱사발(匙·보)에 祭品들을 陳設할 때 마른 대추, 밤, 개암 마름(菱仁)을 담아 첫째줄에 놓는다고 하였고, 또 「四月望 薦麥櫻桃 七月望 薦黍稷梁米 八月望 薦麻子 九月望 薦榴米」<sup>41)</sup>라 하였으니 ‘4월 보름에는 보리와 앵두를 올리고 7월보름에는 기장·피·좁쌀을 올리고, 8월보름에는 삼씨를, 9월보름에는 멥쌀을 올린다’는 것으로 보아 櫻桃를 재배 이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陶隱集』에

椹爛朱櫻熟 團圓湛露濡  
摘來盤上看 箇箇是明珠

‘찬란하게 붉은 앵두가 익으니/등글등글 이슬에 흠뻑 젖었네/따다가 쟁반 위에 놓고 보니/날날이 밝고 맑은 구슬이더라’는 櫻桃를 禮讚한 詩에서도 生活속에 깊숙히 들어 있는 果實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李塹(1349~1392년)의 詩에

枸杞瑛增紅欲滴  
蒲萄滿架翠如流<sup>42)</sup>

‘구기꽃 뜰에 비쳐 붉게 떨어지려 하고/포도송이 시렁에 가득, 푸른빛 흐르는 것 같네’라는 詩에서와 『陶隱集』에도 眞師라는 스님이 보내준 葡萄를 받고

지은 詩가 있다.

龍玉實累累堆 題封遠自梵宮來  
一箇入口沈病失 何必採葉尋蓬萊

‘바구니에 옥열매가 수북히 담겼는데/피봉을 보아하니 멀리 절에서 온 것이라/한 개를 입에 넣으니 고질병이 없어지듯/하필이면 봉래산에 약초 캐러 갈 것인가’라고 謝禮를 하고 있다. 이 때 이미 포도를 재배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忠肅王 8年(1321년, 사실은 충숙왕 18년인듯?) 6월에

大觀殿銀杏樹自顛<sup>43)</sup>

大觀殿 뜰의 은행나무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記錄으로 보아 은행나무를 이미 栽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왜 넘어졌다는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아 젊은 나무가 아니고 老樹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은행나무로써 가장 오래된 것은 京畿道, 楊平郡 龍門面 新巨里 龍門寺 境內에 있는 것으로 巨樹인데 樹令이 1100여년 되는 것으로 新羅末 麻衣太子가 심은 것이라고 전해지는 나무이다.<sup>44)</sup> 이외에는 우리나라에 나무의 수령이 800여년 된 것이 몇 그루 더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은행나무의 재배는 오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어느 地層에서 발견되는 은행나무 化石 중 現生種과 같은 屬의 은행나무 化石도 수종 발견되었다.<sup>45)</sup> 李鮮時代에 편찬된 『四時纂要』에

銀杏有雌有雄 雄者三稜雌者二稜 須相對而種照能結實<sup>46)</sup>

은행나무에는 암수 만그루가 있다는 것과 암수 구별법을 적고 있는데 암그루와 수그루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는 受精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宋나라 徐兢(1091~1153년)이 毅宗때 (1123년)에 使臣 一行으로 提轄人船禮物官으로 松都에 다녀간 경과와 見聞을 그림에 곁들여서 엮어낸 사행보고서인 『高麗圖經』에

其果實 栗大如桃 甘味可愛 舊記謂夏 月亦有之 嘗問其故 乃盛以陶器 埋土中 故經歲不損 六月亦有含桃 味酸如酢 榛榧最多云 倭國者 亦有來禽青李瓜桃梨棗 味薄而形少 ...<sup>47)</sup>

밤의 크기가 복숭아만한 것이 있으며 맛이 달고 좋다. 고려인들은 밤을 여름까지 갈무리할 줄 안다. 6월에 숭배가 있으나 맛이 시어 초와 같고 개암과 榧子가 가장 많다. 외국에서 오는 것도 있으며 능금, 오얏, 참외, 복숭아, 배, 대추 등은 맛이 별로 좋지도 않고 모양도

작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기록상으로 처음 보이는 것은  
솜桃와 능금이다. 솜桃란 『事類博解』를 보면 櫻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梔子が 대단히 많다고 하였으나  
잣(松栢子)을 잘못 表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자나무의 地理的 分布는 수직적으로는

150~700 m, 수평적으로는 濟州, 全南北, 慶南北에  
限해서 野生하고 있는 것을 볼 때 梔子が 아닌 것 같다.  
이 때 濟州地方에서는 柑橘類가 栽培되고 있었다.  
『高麗史節要』에서 忠烈王 8년(1281년) 10月條에

全羅道按廉使林貞杞 進橘二株 用十二牛  
曳入禁中 柯葉皆枯<sup>48)</sup>

‘전라도 안렴사 林貞杞가 귤나무 두 그루를 進上하였  
는데 소 12마리로 궁중까지 끌어 오니 가지와 잎이  
모두 시들어 버렸다.’ 林貞杞는 귤나무를 王都로 가져  
오는 데만 급급하였지 植物의 生態的 또는 生理的인  
知識을 갖고 있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高麗史』  
列傳 張舜龍 條(張舜龍은 원래 回回人)에

舜龍欲奪之不得 夜率無賴人壞 其垣墻子將軍芸  
豪奢不檢 嘗於八關會 直上五鳳樓 手取案上橘柚  
因而失儀者多 王不悅乃罷<sup>49)</sup>

張舜龍의 행패가 심했다는 것을 적으면서 귤이나 柚  
子が 一般 大衆에게는 아닐지라도 重要行事に 使用되  
었음을 알 수 있다.

高麗 高宗代(1214~1259년간)에 편찬된 『鄉藥救急  
方』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때의 책은 逸散되어서 없고  
그 후 朝鮮時代 世宗때에 刊行한 책이 그 때의 鄉藥材  
180種이 收錄되어 있는데 그 중 148品이 植物性 藥材  
이다. 거기에는 과실로써 밤, 대추, 호도, 복숭아(씨)가  
있다.<sup>50)</sup>

李齊賢(1287~1367년)의 『櫟翁稗說』에 忠烈王 때의  
사람이라는 믿어지는 鄭允宜의 詩가 所取되어 있는데

凌晨走馬入孤城  
籬落無人杏子成  
布穀不知王事急  
榜林終日勸春耕<sup>51)</sup>

‘새벽녘에 말을 달려 외로운 성에 들어가니/올타리도  
헐고 사람조차 없는 마을에 살구열매 맺혀 있다/때죽  
새는 나라일이 급한 줄을 모르는지/하루종일 숲가에서  
밭갈라고 울어댄다’는 것이란든지 圃隱의 詩에서도  
살구나무를 종종 볼 수 있다. 또 『圃隱集』에 양저우  
(揚州)에서 枇杷를 먹어 보았다는 詩에

稟性生南服 貞姿度歲寒

葉繁交翠羽 子熟簇金丸  
葉裏收爲用 冰盤獻可食  
嘗新楚江上 懷核種東韓<sup>52)</sup>

라는 것이 있다. 圃隱先生이 양저우(揚州)에서 枇杷를  
맛보았다는 것은 使臣으로 中國에 갔다가 그곳에서  
枇杷를 먹었다는 말이다. 이 詩의 끝 節句에 ‘씨를  
가지고 東韓에 심어 보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보아  
그 때까지 枇杷가 高麗에서 栽培되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枇杷의 나무나 열매를 본 사람은 극히 드물어도  
東洋畵의 花鳥畵에서는 옛부터 이 나무와 열매를 畵  
幅에 담아온 것이다.

枇杷나무는 常綠樹로써 동부아시아의 온대 남부와  
아열대 原産으로 양쯔강 이남 전역에 分布되어 있고,  
대만과 인도 북부지방에도 分布한다. 經濟的 栽培地帶  
는 年平均 氣溫 15℃ 이상이어야 한다. 비파나무의 꽃은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피는데 受精직후인 幼果時  
에는 -3℃, 꽃은 -5℃, 꽃봉오리는 -7℃ 이하에서  
해를 받는다. 그러나 감귤류 보다는 耐寒性이 좀 강한  
편이긴 하지만 빛굴(光州) 지방에서도 겨울철에 가지의  
연한 부분의 凍死되는 일이 많고 結實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濟州나 南海岸地方에서는 잘 자라고 結實도 잘  
되어서 열매가 出荷되는 6월부터 7월 중에 木浦 등지  
에서는 이 과실을 市場에서 구할 수 있다. 朝鮮時代  
崔漢綺에 의해 編纂된 『農政會要』(1830)에 枇杷에 대  
해서

…四時不凋 冬開百花 三四月成實簇結有毛 大者  
如鷄子 小者如龍眼 味甘 而酢白者爲上 黃者次之  
皮肉薄核大如 茅栗相傳 枇杷秋萌冬花春實夏熟 備  
四時之氣<sup>53)</sup>

‘사철 마르지 않고 푸르며, 겨울에 흰꽃이 피고, 3~4  
월에 열매 맺고 잔털이 있으며, 큰 열매는 달걀만 하고  
작은 열매는 龍眼만 하다. 맛은 달다. 酢를 만들기에  
는 흰 열매가 가장 좋고(좀 덜 익은 것), 그 다음이 노랗게  
(黃金色) 익은 열매이다. 皮肉(껍질이 얇음)은 맑고  
씨는 덜 자란 밤만 하다. 枇杷는 가을에 싹트고, 겨울  
에는 꽃피고, 봄에는 열매가 크게 자라고, 여름에는  
열매가 익으니 사철의 맛을 간직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許垞의 『東醫寶鑑』에

生南方 木高丈餘 葉大如驢耳 背有毛 四月採葉暴乾<sup>54)</sup>

‘비파는 남쪽에서 나며 비파나무는 한길 남짓하고 잎은  
큰데 나귀 귀를 닮았고 등에는 잔털이 있고, 4월에 잎을  
따서 말려 藥으로 쓴다’라는 것으로 보아 高麗時代에는  
枇杷를 栽培하지 않았던 것 같고 朝鮮初期에 와서 따  
듯한 남쪽지방에서 드물게 栽培한 것으로 본다.

## VI. 朝鮮時代의 果實類 食品

朝鮮時代로 들어서면서 官撰 또는 個人的 著述을 통한 農書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 중에는 果實類의 栽培法 및 利用法을 적고 있는 것들도 있다. 朝鮮時代 初期에 우리나라에서 栽培하던 果實類를 『世宗實錄地理志』(1454)와 盧思慎, 姜希孟 등 많은 이들에 의해 편수된 『東國輿地勝覽』을 李 荇, 洪彦弼 등이 增補한 『新增東國輿地勝覽』(1492)에 收錄된 것을 표 3에서 볼 수 있다.

표 3에서 두 地理書를 보면 『世宗實錄地理志』는 『新增東國輿地勝覽』보다 약 40년쯤 앞서 刊行된 책이다. 그런데 前者에는 後者에서 보다 훨씬 많은 果實類가 收錄되어 있다. 그것은 後者の 撰者들이 土產物에 대해서 더 細密히 적지 않은 까닭일 것이다. 後者에는 前者에 없는 果實인 은행과 은행 두 種類가 있다. 그리고 이 두 地理書에는 오늘날 果實로 취급치 않는 種類도 있는데 개암, 오미자, 복분자, 잣, 땃대추, 산수유, 구기자, 은행 등이다. 그리고 감에 대한 記錄을 볼 수 있는데 高麗時代까지의 記錄에서 볼 수 없었던 果實으로써 이 때에 이미 中部以南 즉, 現在 栽培되고 있는 全地域에서 栽培되고 生産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朝鮮이 建國되기 以前부터 栽培되었으리라 생각된다. 徐有槩의 『林園十六志』에 감의 栽培法을 적고 그리고 長點을 적었는데

柿有七絶 一多壽 二多陰 三無鳥巢 四無蟲蟻  
五霜葉可玩 六佳實可咬 七落葉肥大 可以臨書<sup>55)</sup>

라 하였다. 첫째 나무의 수명이 길고, 둘째 그늘이 많이 지며, 셋째 나무에 새집을 짓지 않고, 넷째 벌레나 개미(진디물과 개미의 공생관계인 듯)가 없고, 다섯째 단풍든 잎이 아름답고, 여섯째 감나무 그늘에서 좋은 친구와 교유할 수 있고 일곱째 낙엽은 비료가 많이 되니 이것들이 감나무의 七絶이라 하였다.

朝鮮時代 初期의 農書에 여러 가지 果實類가 記錄되어 있는 것은 『四時纂要』이다. 거기에는 10여種의 果實類에 대해 栽培法과 利用法 등이 있다. 이외에도 朴世堂의 『櫛經』(1676), 洪萬選의 『山林經濟』(1715), 林重臨의 『增補山林經濟』(1766), 徐命膺의 『攷事新書』(1771), 朴趾源의 『課農小抄』(1799), 徐修吉의 『海東農書』(18세기말경), 禹夏永의 『千一錄』(18세기말), 徐有槩의 『林園十六志』(1827년경), 崔漢綺의 『農政會要』(1830)와 徐有槩의 『杏滿志』 등에 여러 가지 果實類가 記載되어 있다. 이들 農書에 收錄된 果實類는 표 4와 같다.

이밖에 許坡의 『東醫寶鑑』(1613), 許筠의 『屠門大嚼』, 李晔光의 『芝峯類說』(1615), 憑處閣李氏의 『閨閣叢書』(1811)에서도 果實類들이 收錄되어 있다. 350여년 전의 許筠의 『屠門大嚼』에서는 그 자신이 먹어 보았던 것으로 全國에서 有名한 果實을 들고 있다. 江陵의 天

표 3. 지리서에 수록된 각 도에서 생산되는 과실류

도 별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경기도	개암, 오미자, 밤, 감, 대추 살구, 앵두, 복숭아, 오얏, 모과	오미자, 앵두, 능금, 감, 잣, 밤
충청도	개암, 오미자, 복분자, 밤, 대추 잣, 감, 배, 호도, 포도, 모과	잣, 대추, 밤, 감
경상도	오미자, 복분자, 구기자, 비자 잣, 밤, 대추, 감, 석류, 복숭아 살구, 호도, 배, 모과, 굴	산수유, 잣, 오미자, 구기자, 비자, 밤 대추, 감, 매화, 석류, 유자, 호도
전라도	개암, 오미자, 구자, 잣, 비자 모과, 대추, 감, 배, 석류, 살구 오얏, 복숭아, 매화, 유자, 유감 동정굴, 금굴, 청굴, 산굴	개암, 오미자, 잣, 은행, 모과, 밤 석류, 감, 호도, 대추, 유자, 황감, 유감 동정굴, 금굴, 왜굴, 청굴, 산굴
황해도	개암, 오미자, 잣, 땃대추, 밤 배, 살구, 복숭아	오미자, 잣, 밤, 배
강원도	개암, 잣, 복분자, 오미자, 밤 대추, 감, 배, 모과, 호도	오미자, 잣, 배
평안도	개암, 오미자, 잣, 밤, 대추, 배	오미자, 개암, 아가위, 잣, 호도
함경도	개암, 오미자, 복분자, 살구	오미자, 잣, 대추, 밤, 배



표 4. 朝鮮時代의 農書에 收錄된 果樹

書名	果樹類
四時纂要	은행, 밤, 복숭아, 매화, 배, 석류, 앵두, 살구, 오얏, 포도
山林經濟	복분자, 잣, 은행, 밤, 대추, 복숭아, 매화, 배, 모과, 능금, 사과, 감, 석류, 귤, 앵두, 살구, 오얏, 호도, 포도
樞經	개암, 은행, 밤, 대추, 복숭아, 배, 모과, 능금, 사과, 살구, 오얏, 포도
增補山林經濟	복분자, 비자, 은행, 밤, 대추, 복숭아, 매화, 배, 모과, 능금, 사과, 감, 유자, 귤, 앵두, 살구, 오얏, 호도, 포도
課農小抄	복분자, 잣, 은행, 밤, 대추, 복숭아, 매화, 감, 살구, 오얏, 포도, 무화과
海東農書	개암, 아가위, 팔배, 비자, 잣, 은행, 밤, 대추, 복숭아, 매화, 배, 능금, 사과, 감, 석류, 감자, 유자, 귤, 앵두, 살구, 오얏, 호도, 포도
林園十六志	개암, 아가위, 복분자, 팔배, 비자, 잣, 은행, 밤, 대추, 복숭아, 매화, 배, 모과, 능금, 사과, 감, 석류, 감자, 유자, 귤, 앵두, 살구, 오얏, 호도, 포도, 무화과
千一錄	비자, 밤, 복숭아, 배, 감, 석류, 유자, 귤, 호도
農政會要	팔배, 잣, 대추, 매화, 배, 모과, 능금, 감자, 귤, 앵두, 포도, 무화과, 비파
攷事新書	은행, 밤, 대추, 복숭아, 매화, 배, 모과, 앵두, 살구, 오얏, 포도

賜梨, 旌善의 金色梨, 平安道産의 玄梨, 釋王寺의 紅梨, 谷山 伊川 등 山峽의 文배(大熟梨), 濟州의 金橘, 靑橘, 柚柑, 柑子, 柚子, 柑榴, 溫陽의 早紅梨, 南陽의 角柿, 智異山의 大栗, 智異山의 竹實, 報恩의 大추, 楸子島의 櫻桃, 漢城西部의 唐杏, 三陟, 蔚珍의 紫桃, 春川과 洪川의 黃桃, 漢城西部의 綠李, 始興과 果川의 盤桃, 全州의 僧桃, 信川 尹氏家의 葡萄, 醴泉의 木瓜 등<sup>56)</sup>을 崔南善이 『朝鮮常識問答』에서 引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능금과 사과가 栽培되기 始作한 것은 정확한 年代는 알 수 없으나 이미 『高麗圖經』에서 來禽(林禽)이 있었음을 열거한 것으로 보아 능금재배가 사과재배보다 훨씬 앞에 이루어졌던 것 같다. 『山林經濟』에서는 '査果'라 하였고, 『增補山林經濟』에서는 林橘과 檳果로 나뉘어 그 栽培法을 적고 있다. 다른 農書에서는 사과를 '奈'로 적고 있기도 하다. 『林園十六志』에서는 위의 2種외에 蘋果라하여 또 1種이 있다. 능금이라는 것은 사과보다 열매가 훨씬 작다. 우리나라에서의 능금재배는 적어도 高麗時代부터 이졌으나 사과는 朝鮮時代인 壬辰亂, 胡亂을 겪는 뒤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sup>57,58)</sup>

無花果는 아라비아 南部地方 原産으로 옛부터 시리아, 소아시아 등지를 거쳐서 地中海沿岸 여러 나라에 널리 栽培되었다. 西域에서 中國으로 無花果가 전래 된 것은 +7세기인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無花果에 대한 最初의 記錄은 『東醫寶鑑』에서 이다.

無花結實 色如靑李而稍長

自中原移來 我國或有之<sup>59)</sup>

‘무화과는 꽃없이 결실되며 열매빛이 靑李와 같고 모양은 약간 길다. 中國으로부터 移來하여 우리나라에도 종종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生果가 아니라 乾果를 말하는 것이다. 意慾과 好氣心과 探求心이 強했던 公的, 私的인 目的으로 中國을 다니오는 者들에 의해 苗木을 갖고 들어와서 土宜에 맞는가를 부단히 試闢도 했을 것이다. 『課農小抄』의 授時篇에 8월의 할 일들을 나열 하면서 거두는 것과 심는 것, 그리고 대나무밭을 물에 치고 게(蟹)도 잡고 오이김치도 담그는 상세한 記錄 가운데 花果를 옮겨 심는다<sup>60)</sup>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꽃과 果實의 集合名詞가 아닌 것은 35가지의 8월에 할 일 중에 集合名詞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家畜이라는 單語外에는 一般名詞로 된 것으로 보아서 無花果를 指稱하는 것 같다. 『增補山林經濟』의 <增補四時纂要>중 4월의 할 일 중 <花果>項目은 分明히 複合名詞이며 앵두, 석류, 포도에 손줄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하다. 無花果의 栽培法을 구체적으로 收錄하고 있는 것은 『林園十六志』이다. 春分前에 가지들 2~3尺 길이로 잘라 반쯤 땅속에 들어가게 꽂아 놓고 물을 주면 苗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좋은 점 여섯 가지도 들고 있다. 그 좋은 점이란 첫째 감처럼 乾果를 만들 수 있고, 둘째 6월 지나서 霜降까지 3개월 동안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셋째 나무에서 족히 10년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큰 가지를 꺾듯이 하면 그해 결실하고 그 다음해 큰 나무가 되며, 넷째 잎은

치질에 좋고, 다섯째 霜降후 未熟果를 따서 糖蜜煎果 즉 쨌를 만들 수 있고, 여섯째 나쁜 땅에도 잘 자라니 땅을 얻을 수 있다.<sup>61)</sup> 無花果나무는 耐冬性이 약하여 제주도와 남해안 및 전남, 경남에서만 조금씩 재배되고 있다. 빛골(光州) 지방에서도 무화과가 싹트는 4월 초 중순에 된서리가 나리면 그 때 形成되었던 幼果는 다 떨어져 버리고 晚霜이 지난후에 形成된 열매를 우리가 가을철에 먹는 것이다. 최근에는 無花果 果樹園을 造成하는 곳도 있으나 耐冬性이 약한 園藝作物이어서 널리 普及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朝鮮時代의 다른 農書에서는 紹介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 無花果가 들어온 것은 적어도 16세기 前後로 생각되지만 未詳이다. 우리나라에서 制限된 地域이긴 하지만 옛날에 비해 폭넓게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20世紀初부터 이다. 최근에는 무화과 통조림도 少量出荷되고 있다.

피칸이라는 호도과식물에 속하는 과실이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초에 미국으로부터 들어 왔다. 이것은 열매는 殼果類이긴 하지만 호도껍질처럼 단단하지 않고 손으로도 깨뜨릴 수 있다. 피칸의 栽培上の 문제점은 結實年令에 달하기에는 10년 이상을 요하는 것이며, 接苗木일지라도 4~5년이 걸리는 점이다. 피칸은 현재 順天, 光州, 全州 등 남쪽지방에서만 재배되고 있다. 피칸의 모양은 호도와 비슷하지만 크기는 작고 果肉은 호도보다 달고 양분이 많고 열량도 높다.

양앵두에는 甘果 양앵두(sweet cherry)와 酸果 양앵두(sour cherry)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甘果 양앵두를 재배하여 1900년 전후에 도입되었다. 甘果 양앵두는 서남아시아가 원산지이다. 내한성은 사과보다 좀 약하여 -20℃ 이하의 낮은 곳에서는 흔히 主幹이 갈라지는 수가 있다. 최근 栽植이 늘고 있는 현상이다. 酸果 양앵두는 오로지 加工으로만 쓰이지만, 甘果 양앵두는 加工도 하지만 주로 生食用을 쓰인다. 양앵두와 동양앵두와의 차이는 열매의 크기에도 있지만 꼭지의 길이가 3cm 남짓되는 점도 있다.

최근 키위(英名 kiwi fruit, Chinese goosberry)라는 다래나무과식물이 들어와서 남부지방에서 상당량 생산되고 있다. 學名은 *Actinidia chinensis*이다. 키위는 中國의 양쯔강연안이 원산지인데 華中地方으로부터 열대에까지 널리 栽培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련에서도 栽培되고 있다. 中國에서는 이 과실을 楊桃, 獼猴桃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키위를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도입해서 栽培하고 있는데 이 과실의 표피에 갈색의 잔털로 덮혀 있는데서 뉴질랜드 特産새인 kiwi 비슷하다고 하여 그와 같은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 과실나무는 암수 딴 그루이고 덩굴성의 나무이다. 열매의 크기는

긴쪽이 5cm 정도, 폭은 3cm 정도이다. 果肉은 에멜란드 녹색으로 放射狀으로 작은씨가 많이 들어 있으나 그 씨앗까지 다 먹을 수 있다. 맛은 잘익은 다래처럼 단맛과 신맛은 물론 딸기맛, 사과맛, 파인애플맛도 나는 多汁質의 果實이다. 키위는 豊産性의 과실나무인데 수확은 비교적 기온이 내려가는 10월말부터 11월에 걸쳐서 한다.

朝鮮時代의 農書들은 다분히 家庭百科形式을 띤 것이 많은데 그들 속에는 果實의 栽培法만 아니라 利用하는 法도 記錄되어 있다. 먼저 『增補山林經濟』에서 보면 杖죽, 菴죽과 餅麵類로는 雜果粘餅法, 雜果羔法, 栗羔法, 杏餅桃餅法과 茶湯類로는 杏酪湯法, 梅花茶法, 柚子茶法, 葡萄茶法, 薑橘茶法, 梅子茶法과 煎油蜜果煎 蜜果茶飴類로는 乾栗茶食法, 杏煎法, 桃煎法, 櫻桃煎法, 木瓜煎法, 山葡萄煎法, 獼猴桃(다래)煎法, 棗爛法, 栗爛法 등이 있고 그 만드는 方法 등도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는 『林園十六志』와 『閨閣叢書』에도 前者에 못지않은 果實을 利用한 飲食들이 調理法과 함께 있다. 그리고 張夫人의 作으로 믿어지는 『閨壺是儀方』(1670년경) 즉 『음식지미방』에는 과실을 이용한 음식이 불과 2~3개에 지나지 않는다.

『東醫普鑑』이나 黃道淵의 『方藥合編』에 보면 모든 果實은 藥性이 있으므로 病을 治療하는 목적으로 利用하였다. 복숭아는 喘息, 子宮出血 치료에 밤은 健胃, 복부를 두텁게하고 주림(饑)을 견디게 하는데, 호도는 滋養強壯, 益血補髓, 筋強骨壯, 喘息, 담 제거에, 대추는 대추나무껍질을 태워 그 재를 달여서 눈을 씻으면 어둠던 눈이 밝아진다고 하며, 그 외에도 五臟補益과 緩和劑 역할을 사과는 便秘, 高血壓, 整腸作用이 있고, 능금은 頭痛, 泄精을 다스리고, 배는 消化促進作用을 한다.<sup>62,63,64)</sup>

果實은 生果와 乾果를 이용하였고 그들을 이용한 음식물도 朝鮮時代에는 아주 다양화 되었다. 그리고 果實의 藥理的인면을 利用해서 醫療分野에도 널리 利用하였다.

## VII. 摘 要

韓國에서 農耕의 시작은 新石器時代 末期에서 부분적으로 시작되어 보편화된 것은 B.C 4000년경으로 보고 있다. B.C 8000~B.C 6000년 전쯤의 어느 新石器遺蹟 중에서는 農耕에 쓰였던 石器들과 함께 도토리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有史以前의 韓國人들의 祖上들은 도토리와 개암 아가위 등 野生植物의 열매를 따서 이용했을 것이다. 部族國家時代의 馬韓에서는 밤을 재배하였다. 三國史記에는 복숭아, 오얏, 배, 梅花를 재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中國의 記錄을 보면 新羅에서는 잣, 호도, 석류, 百濟에서는 밤이 유명하다. 渤海王朝에서도 오얏과 배, 잣이 유명하였다. 高麗時代에 복숭아, 오얏, 매화, 앵두, 잣, 살구, 포도, 대추, 배, 굴, 유자, 은행 등을 재배 이용하였다. 朝鮮初期의 地理書인 『世宗實錄地理志』(1454)와 『新增東國輿地勝覽』(1492)에는 개암, 아가위, 覆盆子, 비자, 잣, 은행, 대추, 밤, 감, 석류, 살구, 복숭아, 호도, 모과, 굴, 유자, 앵두, 포도, 능금 등 우리가 현재 재배하고 있는 과실나무가 거의 재배되고 있다. 朝鮮時代에 들어온 果實으로써 위의 地理書에 없는 果實로는 枇杷와 無花果이다. 비파는 조선초기에 들어온 듯하여 無花果는 16세기 전후에 들어온 듯 한데 이들 두 종류의 과실나무들은 耐寒性이 약한 種類이기 때문에 지금도 濟州와 全南, 慶南 등지에만 재배되고 있다. 朝鮮時代에 들어 와서는 많은 農書들이 出刊되었는데 거기에는 果樹栽培法과 利用法도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900년 전후해서 西洋에서 피칸·양앵두 뿐만 아니라 최근 키위 등이 수입되어 상당히 이용되고 있다. 또 이외에도 果實의 藥理的인 면을 이용하여 모든 과실을 漢藥으로써 醫療面에도 널리 利用되었다. 果實은 우리들의 食生活를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과실의 소비량은 生活水準의 尺度가 된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통하여 果樹들을 改良하고 導入하면서 栽培 利用하여 온 果實類의 지위는 우리의 食生活史에 확고하게 維持되어질 것이다.

### 참고문헌

1. 星川清親, 千原光雄, 1972, 「食用作物圖說」 女子榮養大學出版部 p. 210.
2. 張權烈, 1988, 「農業哲學」 鄉文社 p. 28.
3. 이미순, 이성우, 1986, 「韓國園藝食品의 歷史的 考察」 韓國文化學會誌 Vol.1~1 pp. 45~53.
4. 김연옥, 1986, 「한국의 기후와 문화」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 337~356.
5. 이하영, 1987, 「한국의 古生物」 民音社, pp. 111~134.
6. 李昌福, 1964, 「植物分類學」 鄉文社, pp. 170~171.
7. 鄭台鉉, 1965, 「한국동식물도감」 식물편(목·초본류) 삼화출판사, pp. 588~591.
8. Lucien Guyot 저, 德田陽彦 역, 1979, 「栽培植物의 起源」 八坂書房, pp. 100~105.
9. 학원사 편, 1962, 「農業大辭典」 學園社, p. 1130.
10. N. I. Vavilov 저, 中村英司 역, 1985, 「栽培植物 發祥地의 研究」 八坂書房, pp. 195~228.
11. 野田光藏, 1971, 「中國 東北區(滿洲)의 植物誌」 風間書房, pp. 627~656.
12. N. I. Vavilov 저, 中村英司 역, 1985, 「栽培植物 發祥地의 研究」 八坂書房, pp. 195~228.
13. 李德鳳, 1974, 「한국동식물도감」 Vol. 15 식물편(유용 식물), 삼화출판사, p. 463.
14. Sybil · P · Parker, 1982, Synopsis and Classification of Living Organisms, McGraw-Hill, N.Y. p. 376.
15. 이하영, 1987, 「한국의 古生物」 民音社, pp. 111~134.
16. Zawasky 저, 高橋 清, 松岡廣雄 譯, 1975, 「種의 研究」 たたら書房 p. 265.
17. 윤내현, 1989, 「한국고대사」 三光出版社, p. 36.
18. 韓國上古史學會 편, 1989, 「韓國上古史」 民音社, pp. 332~345.
19. 張光直, 尹乃鉉 역, 1989, 「商文明」 民音社, pp. 193~194.
20. 張光直, 尹乃鉉 역, 1989, 「商文明」 民音社, pp. 193~194.
21. 尹乃鉉, 1986, 「中國의 原始時代」 檀國大學校出版部, pp. 256~417.
22. Joseph Needham 저, 李錫浩, 李鐵柱, 林禎堃, 崔林淳 역, 1985 「中國의 科學과 文明」 Vol. 1, 乙西文化社, p. 213.
23. 賈思勰, 「齊民要術」, 卷四, 世界書局.
24. 「淮南子」 第十九卷 修務訓篇.
25. 「三國史記」 卷二十三, 百濟本紀 第一.
26. 「三國史記」 卷一四, 高句麗本紀 第二.
27. 「三國史記」 卷十九, 高句麗本紀 第七.
28. 「隨書」 卷八十一, 列傳 第四十六 百濟傳, 中華書局據式英殿本校刊.
29. 韓致蕓, 「海東釋史」 第二冊, 物産志 一 p. 20.
30. 李晔光 저, 南晚星 역, 1975, 「芝峯類說」 乙西文化社, p. 442.
31. 李 光 저, 南晚星 역, 1975, 「芝峯類說」 乙西文化社, p. 442.
32. 賈思勰, 「齊民要術」, 卷四, 世界書局.
33. 姜椿基, 1989, 「外國原産의 몇몇 有用植物의 渡來考」 東洋資源植物學會誌, Vol. 2(2), pp. 279~290.
34. 李崇仁 저, 李漢祚 역, 1978, 「陶隱集」 大洋書籍, p. 386.
35. 李春寧, 1989, 「韓國農學史」 民音社, p. 40.
36. 「新唐書」 卷二百十九, 列傳, 第一百四十四, 渤海傳.
37. 방학봉, 1989, 「발해사 연구」 정음사, pp. 12~20.
38.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편, 1979, 「발해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 93~97.
39. 「高麗史」 卷七十九, 志卷三十三, 食貨 二.
40. 「高麗史」 -(39)와 같음.
41. 「高麗史」 卷六十一 志卷十五 禮三.
42. 李 墻 저, 李爽求 역, 1973, 「收隱集」 大洋書籍, p. 51.
43. 「高麗史」 卷五十四, 志卷 第八, 五行 一.
44. 이휘재, 1966, 「한국동식물도감」 제 6권 식물편(화쇄류II), 삼화출판사, pp. 193~197.
45. 이하영, 1987, 「한국의 古生物」 民音社, pp. 111~134.
46. 「四時纂要」,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81), pp. 242~243.
47. 徐 兢, 「高麗圖經」(민족문화추진회 번역, 1986), p.

- 142.
48. 「高麗史節要」卷二十 忠烈王 八年 十月條.
49. 「高麗史」卷一百二十三 列傳 卷三十六 嬖幸 一.
50. 李德鳳, 1963, 「鄉藥救急方의 方中鄉藥目 研究」亞細亞研究 Vol. 6(1), pp. 339~366.
51. 李齊賢 著, 李相寶 譯, 1972, 「樸翁神說」, 大洋書籍, p. 447.
52. 鄭夢周 著, 李漢祚 譯 1978, 「圃隱集」, 大洋書籍, p. 49.
53. 崔漢綺, 「農政會要」(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83), pp. 154~155.
54. 許 垞, 「東醫寶鑑」湯液篇.
55. 徐有槩, 「林園十六志」晚學志 卷第二.
56. 崔南善, 1972, 「朝鮮常識問答」, 三星文化射圖刊行 p. 54.
57. 李盛雨, 1984, 「韓國食品文化史」教文社, pp. 170~188.
58. 이미순, 이성우, 1986, 「韓國園藝食品의 歷史的 考察」韓國文化學會誌 Vol. 1(1) pp. 45~53.
59. 許 垞, 「東醫寶鑑」湯液篇.
60. 朴趾源, 「課農小抄」授時篇.
61. 徐有槩, 「林園十六志」晚學志 卷第二.
62. 許 垞, 「東醫寶鑑」湯液篇.
63. 黃道淵, 「方藥合編」.
64. 沈相龍, 1976, 「漢方食療辭典」創造社, pp. 408~560.
- 참고 櫻桃의 異稱을 『事類博解』에 보면 金桃, 朱桃, 星珠, 麥英, 火實, 金丸, 荊桃, 含桃, 崑蜜, 火齊, 失果, 繫星, 首果로 되어 있다. 鄭良婉, 譯註의 『閩閩叢書』〔註〕에서 引用.